



News Letter

April 2006 _ 제4호

<http://uit.dongseo.ac.kr>



동서대학교 유비쿼터스 IT전문인력양성사업단

동서대학교 컴퓨터정보공학부, 부경대학교 전기제어계측공학부, 경남정보대학 컴퓨터정보계열

재미있는 생활 속 IT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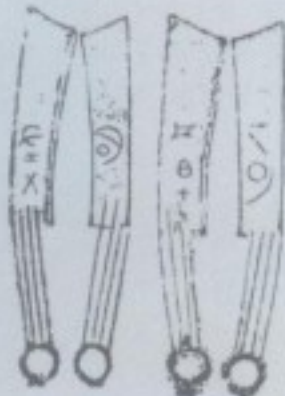
- 역사 속의 암호 이야기(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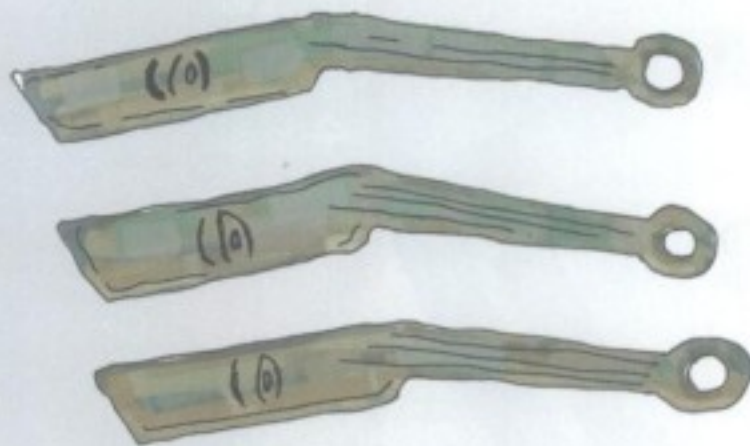
컴퓨터정보공학부
이훈재 교수

“명도전은 고조선의 화폐가 아닐까?” (성삼재, “고조선 사라진 역사”에서 인용)

우리 역사학자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역사 시작은 BC2333년, 중국의 화폐로 알려진 명도전(明刀錢)의 암호를 해독하면 잃어버린 우리의 역사를 되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암호 해독의 문제는 우리 IT 전공자의 몫이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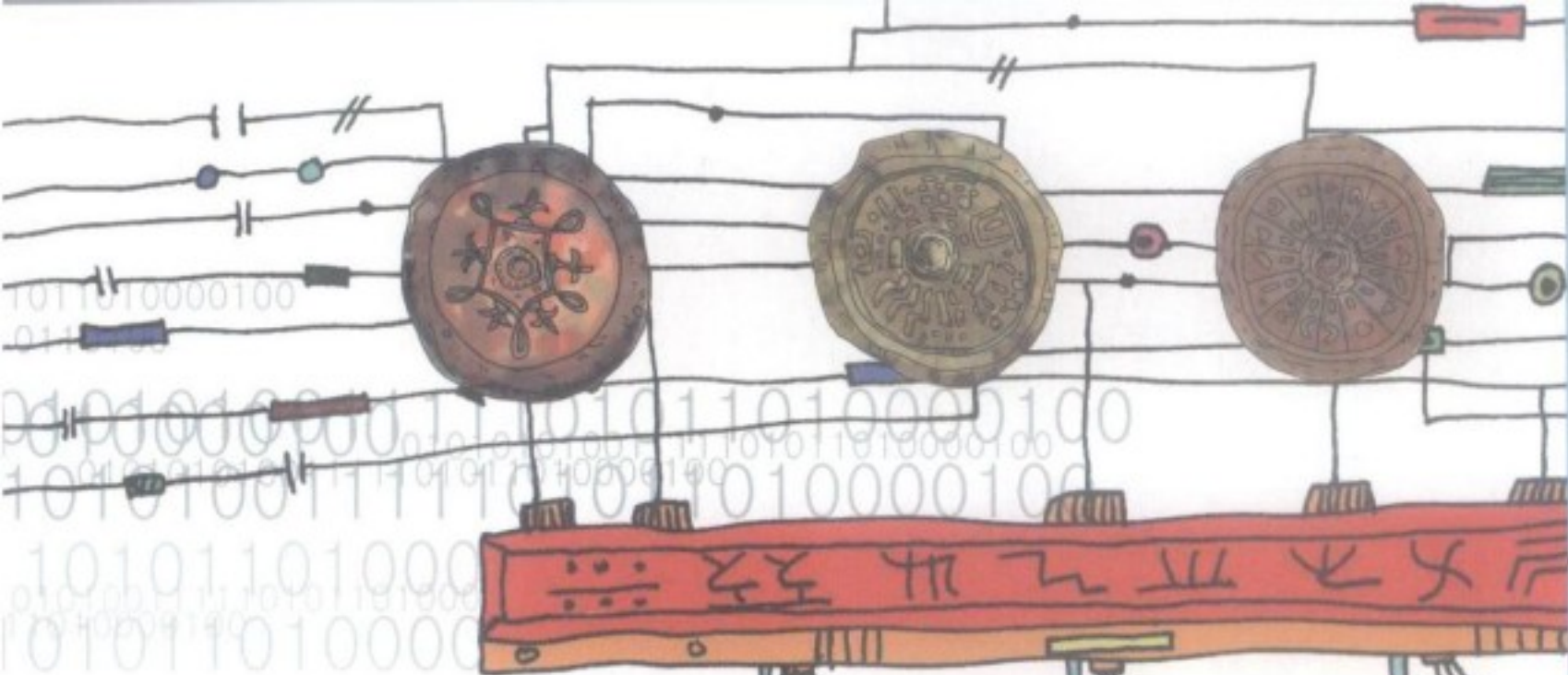


명도전이라고 알려진 청동화폐들.
화폐에 새겨진 여러 가지 글자와 문양은
아직까지 해독하지 못한 것이 많다.



○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연나라와 제나라에서 사용했다고 알려진 청동화폐명도전

얼마 전 유럽에서 온 한 외국인 교수로부터 우리나라의 역사가 얼마나 되었느냐고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나는 순간적으로 고조선의 역사를 넣어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즉시, '기원전 2333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답변을 했다. 역사가 오래된 유럽의 자부심 많은 교수님의 눈이 휘둥그런 모습을 보면서, '잘된 답변인가?'라는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왜 그 옛날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시대 사람들이 의심 없이 받아들이던 고조선 역사를 왜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이 당연하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매우 답답함을 느끼게 되었다. 전문가들인 역사학자들이 증거 부재



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비전문가이긴 하지만, 우리가 믿고 싶은 고조선에 대한 역사적 증거를 위하여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까 생각하던 중에 우연히 좋은 고종 대상을 찾았다.

‘고조선(古朝鮮)’이라는 나라 이름은 원래는 ‘조선(朝鮮)’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이성계가 세운 ‘조선(朝鮮)’과 구별하기 위하여 단군왕검이 세운 나라를 ‘고조선’으로 부르고 있다. 고조선의 시작은 BC2333년으로 알려져 있지만, 역사적 사료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의 설이 있다. 고조선 건국 연도는 《동국통감》 《해동이적》 《동국역대총목》에서는 기원전 2333년, 《삼국유사》에서는 기원전 2308년, 《제왕운기》에서는 기원전 2357년으로 각각 기록하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믿을 만한 내용을 근거로 BC2333년을 고조선 건국년도로 정했다고 현대참고, 성삼재 저.

‘명도전(明刀錢)’은 청동제 화폐로서 손칼 모양의 납작한 표면에 ‘명(明)’자 비슷한 문양이 새겨져 있어서 일본 학자가 이름을 붙였고, 중국 학자들이 ‘연나라 화폐’와 비슷하기 때문에 연나라 화폐로 규명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일부 국내, 중국, 러시아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명도전의 출토지역은 고조선 지역(확대 해석된 고조선 지역)과 일치하고 있어서 ‘비파형 청동검’과 더불어 ‘명도전도 고조선의 역사적 유물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주나라의 포전 등과 같이, 비슷한 시기에 생산된 화폐들은 표면에 새겨진 문양의 글자(갑골문자와 유사한 글자)를 중국 학자들이 쉽게 해석하였는데 반해서, 명도전의 경우에는 문양의 의미조차도 제대로 해석되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그림의 문양) 따라서 우리는 고조선의 전 영역에서 출토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새로운 이슈명도전에 대하여, 우리 IT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양각된 암호를 해독함에 있고, 이를 통하여 신화로만 알려진 단군왕검의 고조선을 역사의 출발점으로 부활시킬 만한 책임이 있음을 가슴 뭉클하게 깨닫는다. 우리는 새겨진 암호를 해독하기 위하여 어떻게든 자료를 수집하여야 하며, 방대한 자료 수집과 더불어 고조선 시대를 웅장하게 살다간 우리 조상들의 옛말과 글을 찾아내는 일에 소홀할 수 없음을 느낀다.

